

완도군, 코로나19 대응 수산업 위기 극복·발전 방안 모색

전북·광어·김·다시마·수출 등 업계 대표 참석

전북보내기 운동 등 민·관 힘 합쳐 위기 극복해

완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수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완도군의회 이병성 의원, 김재홍 의원과 전북·광어·김·다시마·수출 등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먼저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다시마 재고량 증가, 광어 가격 급락, 전북 소비 둔화로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북 양식 어업인들이 힘을 모아 대구, 경북 지역 등에 전북 보내기 운동과 드라이브

스투를 통해 판촉 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 소비 및 수출이 둔화되었으나 현재는 호전되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석 명절 선물 지역 상가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수산물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비대면 해외시장 개척 사례 등을 공유했다.

추석 명절에는 완도 전복이 조기에 품질되고, 광어 역시 출하량이 부족하여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였다.

전복의 경우 3-4월에는 수출이 주춤했으나 바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베트남과 싱가포르, 대만 등 신시장 판로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광어 가격은 4월까지 일시 하락하였으나, 5월부터는 상승하며 지난해 동월 대비 42%가 오르며 현재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완도=김광수기자



강진군, 취약계층 가정 아동 집중모니터링·안전교육

오는 23일까지 사례관리 아동 228명 대상



강진군 드림스타트는 오는 23일까지 사례관리 아동 228명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 및 화재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강진군 드림스타트는 오는 23일까지 사례관리 아동 228명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 및 화재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화재 화재 사고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 및 화재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돌봄 및 급식), 아동 안전 확인(건강 및 위생상태)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연계, 아동급식 또는 돌봄 신청 연계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한다.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취약

계층 아동의 돌봄을 보장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보호자 양육교육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한다.

모니터링과 함께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 및 양육자가 초기 화재 발생시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수칙, 화재 발생 시 신고요령·대처법도 교육한다.

이승욱 군수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조사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스마트 교실’ 운영

2021년 검정고시 대비 공부방 ‘스마트 교실’ 참가자 모집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2021년도 검정고시를 대비해 공부방 프로그램 ‘스마트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마트 교실’은 학습 공간 및 학습의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전까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 시청, 자율

학습, 독서, 1:1 교과지도 등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은주 장흥군 꿈드림센터장은 “장흥군 꿈드림을 통해 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 체계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농협과 배추·대파 공선출하 회장 등 참석해

진도군이 최근 NH농협 진도군지부 회의실에서 2020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NH농협 진도군지부, 진도 관내 지역농협, 배추·대파 공선출하 회장 등이 참석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은 반복되는 겨울채소(배추, 대파) 수급불안상황에 선제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시책사업인 채소가격안정제를 2018년 시범적으로 첫 도입했다.

시행 첫 해 다소 계약율이 저조했지

만, 안정적 계약물량 확보를 위해 지역농협 사업비 부담분(10%)의 50% 부담, 출하 물류비 지원 등의 겨울채소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겨울대파 재배면적의 16%가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하는 등 사업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급안정 겨울채소의 감축이 필요하며,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재배 농업인들의 겨울채소 품위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진도군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1,028ha이며, 배추



재배면적은 긴 장마, 태풍 등의 영향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1,264ha이다.

한편 2020년 채소가격 안정제는 이달 10월 16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군민과의 약속 민선 7기 공약사업 ‘순항 중’

공약사업 추진율 68% 달성

강진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3분기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대 분야, 40개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7대 분야별 공약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 육성 ▲상업적 지역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산업 육성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 실현 ▲주요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행정 실현이다.

9월 현재 강진군의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율은 68%에 달한다.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해 공약 추진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시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3분기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대 분야, 40개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심 부군수는 “군정 목표와 방침, 각종 주요 사업을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창출하고, 완료된 사항이라도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3분기 동안 간부회의와 주요 사업

현장에서 발굴한 군수 의견 47건과 군정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그중 완수율이 최대 100%인 32건은 완료했고 15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보은산 등산로 야자메트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이미 완료됐거나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